이룸투자자문

성공투자의 꿈, 이룸에서 이루어드립니다

이룸소식 2015 04호

봄비가 살짝 내리더니 어느새 바람사이로 따스함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봄바람과 함께 이번달 이룸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3월에도 지속된 반등추세

3월에 종합지수는 2.8% 상승하면서 연초 이후로는 6.5%를 기록하며 반등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증시가 견조한 가운데 중국증시도 후강통 이후 랠리를 지속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초저금리 및 통화공급정책으로 풀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증시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재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관리에 강점이 있는 증권주 등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초저금리 시대로

한국은행은 3월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1.75%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저금리 환경에서 시중의 부동자금 중 일부는 점차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시가 급격히 하락하기 보다는 선별과정을 거치면서 대형주와 일부 새로운 종목군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월 운용경과

이룸의 포트폴리오는 3월에 종합지수를 소폭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룸이 한 축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구조 관련 종목과 인터넷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개별종목들도 시장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장 수익률에 다소 못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룸은 최근 소비재와 증권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과하지 않은 종목들을 추가로 편입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일부 대응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파라다이스, 게임빌 등과 같이 사업모델이 건재하지만 일시적인 이유로 주가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룸의 색깔을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4월 증시 및 운용전망

국내외의 경기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낮은 유가와 원화가치 하락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많이 부진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시로의 꾸준한 신규자금유입으로 증시 수급도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다만 최근에 소비재와 바이오 일부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과도한 면도 있어보여 주가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룸은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좋은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음 변화를 고민하면서 다음달에는 새로운 종목들과 더 좋은 수익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31.
조세훈 올림 / 이룸투자자문 대표